

프랑스 혁명기 공화력의 제정과 그 의미*

송 기 형 (건국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본론
 - 1. 공화력의 원칙
 - 2. 공화력의 명칭
- III. 맺는말

I. 머리말

13세기에 출현한 단어 *révolution*은 원래 천문학적 의미(사물을 그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는 운동, 즉 회전 또는 순환)로 쓰였다. 인문학에서는, 정식으로 목록에 기입된 몇 가지 정치 형태의 반복적인 회귀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그것은 태양의 회전처럼 이전 상태로 반드시 돌아가며 질서와 규칙성, 수동성이 특징이고 새로움이라고는 전무한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영어 단어의 영향으로 전혀 새로운 의미(인생의 우여곡절, 공적인 일에 일어난 비상한 변화 등)가 일반화된 결과, 동일한 상태로의 회귀/새로움의 급작스럽고 격렬한 출현, 예측 가능/불가능, 질서/무질서, 보통/특별의 상반적인 의미가 공존하게 되었다. 18세기의 많은 논쟁을 통해 후자가 차츰 득세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 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쿠데타의 동의어로 쓰이는 정도여서 ‘사회의 심오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또 원래의 의미로도 계속 사용되었다. 그래서 영국 혁명이나 미국 혁명을, 정상적인 과거로 회귀한 질서 혁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변질과 소란의 무질서 혁명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¹⁾

다시 말해서 혁명에 두 가지 종류,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질서를 회복하는 혁명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무질서한 혁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인들의 혁명적 심성은 전대미문의 혁명을 요구했다. 과거로 돌아가는 혁명은 더 이상 혁명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혁명은, 절대왕권을 제한하거나 개혁하는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혁명이었다. 그것은 영국인의 권리나 프랑스인의 자유처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 일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혁명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수형 혁명 *révolutions*이 아니라 대문자 혁명 *Révolution*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심성에 의해 *révolution*이란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된다. 이 단어 자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외국인들이 1789년에 그토록 경악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모든 과거와 전례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시초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제 *ancien régime*, 일소 *table rase*, 재생 *régénération*과 같은 단어들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거나 창출된다. ‘파괴해야 할 과거 전체’인 구체제는

1) François Furet et Mona Ozouf,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1988, pp. 848-849. Alain Rey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s Le Robert, 1993, pp. 1800-1801. 송기형, 「혁명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학술지』 39집, 건국대학교, 1995, p. 62. 송기형, 「프랑스 혁명기 공교위의 교육안 연구」, 『프랑스사연구』 29호, 한국프랑스학회, 2013, pp. 57-58.

일소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의 모든 과거사는 야만과 암흑과 무지와 광신의 역사이므로 철저히 파괴해야 하고, 이러한 일소를 통해서만 프랑스와 프랑스 인민이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90년부터 봉건제의 모든 표지를 파괴하라는 법이 나오고 1792년 9월 국민공회 소집과 함께 개명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²⁾ 드디어 기원(紀元)과 역법 그리고 언어까지 바꾸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법, 관습, 풍속, 복장, 상업 그리고 심지어 생각까지 혁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일상적인 도구인 언어도 혁명합니다.³⁾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혁명력’으로 통용되는 공화력 *calendrier républicain*이, 구체제 일소와 재생이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혁명적 심성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공화력의 제정 과정을 관련 사료⁴⁾와 국외의 선행 연구들⁵⁾에 의거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
- 2) 국민공회의 1793년 2월 22일자 법이 ‘왕정이나 봉건제를 상기시키는 지명의 개명’을 명령함으로써 왕의 이름을 뺐거나 기독교적인 기존 지명을 공화적인 지명으로 바꾸게 된다. 송기형, 『불란서 대혁명기의 언어정책 - 제헌의회에서 열월 반동 직전까지』,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pp. 150-151.
- 3) www.axl.cefan.ulaval.ca/francophonie/barere-rapport.htm. 이것은 공안위 위원 바레르 Barère가 1794년 1월 27일 국민공회에 제출한 「외국어와 프랑스어 교육에 관한 보고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송기형(1989), pp. 227-234.
- 4) James Guillaume, *Procès-verbaux du comité d'instruction publique de la Convention nationale*, t. 1-6, Imprimerie nationale, 1891-1907.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 5) Bronislaw Baczko, “Le calendrier républicain”, Pierre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 La République*, Gallimard, 1984, pp. 37-83. Mona Ozouf, “Calendrier”, François Furet et Mona Ozouf (1988), pp. 482-491. Marie-Hélène Froeschlé et Chopard · Michel Froeschlé-Chopard, “Une double image de la Révolution: le calendrier et le mètr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279, 1990, pp. 74-88. Irène Tieder, “Le calendrier républicain et ses incidences littérair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292,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공화력의 제정 과정을 소개한 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당연히 국외의 선행연구들에 크게 의존했다. 필자의 연구가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은 결론 부분에서 밝히려 고 한다.

II. 본 론

이미 1789년 7월 14일 다음날 몇몇 신문들이 대사건을 예감하고 1789년을 ‘자유 원년 an premier de la Liberté’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여 이런 연호가 서기(西紀)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⁶⁾ 또 “프랑스가 방금 재생했으므로 천문학자들이 역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Moniteur*에 게재되기도 했다.⁷⁾ 1790년 7월 14일자 *Moniteur*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유 2년 제1일’이라는 표현을 병기한 것으로 보아 1789년은 ‘자유 원년’, 1790년은 ‘자유 2년’이라고 부르는 관행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유 원년’의 기점이 1789년 7월 14일인지 아니면 1789년 1월 1일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가, 입법의회가 1792년 1월 2일 ‘자유 기원 *Ere de la Liberté*’은 1789년 1월 1일, ‘자유 4년’은 1792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 시점부터 모든 공문서에 자유 연호를 서기와 함께 표기하라고 명령했다.⁸⁾

1993, pp. 259-267. Michel Froeschlé, “A propos du calendrier républicain: Romme et l’astronomi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04, 1996, pp. 303-325.

6) Bronislaw Baczko (1984), p. 38.

7) Michel Froeschlé(1996), p. 304.

8)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tome 37, pp. 6-7.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49552k>

1. 공화력의 원칙

역법 개혁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792년 8월 10일 직후이다. 8월 13일 파리 코뮌은 문서에 ‘자유 4년’ 대신 ‘평등 원년’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⁹⁾ 그리고 입법의회가 해산되기 직전에 공공교육위원회(아래, 공교위)에서 기독교 기원을 공화국 기원으로 또 그레고리력을 공화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제임스 기욤은 주장한다.

입법의회 공교위에서 순주법(旬週法) système décadaire이 등장했다. 순¹⁰⁾이 이야기되고 5일간 pentades으로 세분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 단어의 현학적인 어원이 우리 같은 그리스어 애호가들에게 불리일으킬 수 있을 경의에도 불구하고, 새 용어가 뿔뿔 pintades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프랑스적 농담의 대상이 되며 달력과 달장 사이의 비교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진척되지 못했으나 국민공회에서 다시 출현했다.¹¹⁾

제임스 기욤은 입법의회 공교위의 이런 논의가 1792년 8월 22일 이후에 있었다고 본다. 9월 20일 소집된 국민공회는 9월 21일의 첫 번째 공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프랑스에서 왕정은 폐지되었다”고 선포했다.¹²⁾ 9월 22일의 국민공회는 비요바렌 Billaud-Varenne의 제

9)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던 오를레앙 공작은 1792년 9월 14일 자신에게 새로운 성을 붙여달라고 파리 코뮌에 요청했다. 파리 코뮌은 ‘평등’이라는 성을 주어서 오를레앙 공작은 Philippe Egalité가 된다.

10) décade는 ‘순(旬)’, 순의 날들은 순일(旬日)이라고 옮긴다. 피에르 세르나, 『혁명과 민주주의 - 프랑스 혁명과 민주공화국의 창출』, 『프랑스사연구』 33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5, 28쪽, 주 29.

11) James Guillaume (1894), t. 2, p. 8. 이것은 입법의회와 국민공회 공교위 위원을 역임한 보댕 Baudin이 공화력 3년 우월(雨月)에 출판한 『광신과 예배 Le fanatisme et le culte』에 나오는 구절이다.

12)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tome 52, pp. 73-74.

안을 받아들여 공문서에 ‘자유 4년’ 대신 ‘프랑스 공화국 원년’이라고 표기하기로 결정했다.¹³⁾ 실제로는 ‘1792년 9월 25일, 공화국 원년’ 식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역법 개혁은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¹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루이 16세 재판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자유 4년’, ‘평등 원년’, ‘공화국 원년’의 혼용 그리고 공화국 기원의 시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¹⁵⁾ 관련 청원이 빗발치자 국민공회는 12월 20일 “공교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화국 기원과 통속 기원의 일치가 프랑스에 가져다 줄 장점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¹⁶⁾ 그 대신 공교위는 12월 21일의 4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롬 Romme, 페리 Ferry, 뒤퓌이 Dupuis를 임명하고 “과학아카데미 전문위원들과 협의하여 역법 또는 시간의 여러 기간을 정하거나 부르는 방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¹⁷⁾ 12월 31일의 국민공회에서는 ‘공화국 2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1793년 1월 2일의 국민공회가 ‘공화국 2년’은 1793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결정했지만, 왕정을 폐지한 9월 21일이 공화국 기원의 첫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792년 12월 국민공회에 제출된 청원 가운데는 “해는 9월 21일 시작하고 12달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49567m/f84.item>. 8월 22일 파리 코뮌은 Monsieur를 Citoyen으로 바꾸자고 요구했고 국민공회 개회와 함께 의사록에서 Monsieur 대신 Citoyen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으로 대표되는 혁명의 급진화가 호칭과 기원 변경 그리고 역법 개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송기형(1989), pp. 149-150.

- 13)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tome 52*, p. 80.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49567m/f84.item>. ‘자유 4년’을 병기하자는 수정 제안은 배제되었다. 9월 25일 국민공회는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
- 14) 시에스, 보댕, 콩도르세 등은 강력한 반대론자들이었다.
- 15) Mona Ozouf (1988), pp. 483-484.
- 16) James Guillaume, t. 1 (1891), p. 236.
- 17) James Guillaume, t. 1 (1891), pp. 227-228.

에 자유와 평등을 위해 순교한 시민들의 이름을 붙이자”는 것도 있었다.¹⁸⁾

따라서 역법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는 1792년 12월 21일의 공교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공회는 공화국 기원을 1월 1일 시작되는 통속 기원과 일치시킬지 아니면 다른 날짜를 정할지라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공교위는 ‘공화국 기원과 통속 기원의 일치에 관한 법안’ 대신 ‘역법 개혁’ 관련 연구를 롬 등에게 의뢰했기 때문이다. 롬이 『공화국 기원에 대한 보고서』¹⁹⁾를 국민공회 공교위에서 발표한 것은 1793년 9월 17일이었다. 루이 16세 처형, 방데 반란, 지롱드파와 산악파의 대결과 같은 주요 사건들 때문에 역법 개혁 논의는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롬은 1793년 1월부터 과학아카데미가 지명한 전문위원들²⁰⁾에게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라랑드 Lalande에 따르면, 과학아카데미 전문위원들은 역법 개혁에 반대했었다.

나는 역법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제정한 것이어서 아무리 잘 바꾸어도 오랫동안 불화만 조장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레고리 13세의 역법 개혁은 바보짓이었으므로 또 다시 바보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사였다.²¹⁾

롬을 비롯한 공교위 위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라랑드는 ‘이 집트의 12달²²⁾’에 기초한 안을 제시했다. 과학아카데미 전문위원들

18) James Guillaume, t. 1 (1891), p. 237. 공화국에서 법에 의해 통용시킬만한 시민력 *calendrier civil*을 공모하고 상을 주자는 청원도 있었다.

19) James Guillaume, t. 2 (1894), pp. 440-448. <http://prairial.free.fr/calendrier/calendrier.php?lien=rapport1romme>

20) 과학아카데미는 저명한 천문학자 라랑드 Lalande, 팽그레 Pingré, 카시니 Cassini를 지명했다.

21) Michel Froeschlé (1996), p. 306.

의 자문을 받은 롬은 보고서를 완성하여 9월 17일 공교위 126차 회의에 제출하고 두 차례(9월 17일의 126차 회의와 9월 19일의 127차 회의)에 걸친 토의를 거쳐 9월 20일 국민공회에서 낭독하게 된다.

『공화국 기원에 대한 보고서²³⁾』는 “통속 기원은 잔인, 거짓, 불성실, 예속의 기원이었으며 모든 악의 근원은 왕정과 함께 끝났다”고 선언한 다음, 새로운 역법의 원칙을 소개한다. 롬이 당대 최고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한 공화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 기원은 춘분에 두고 공화국이 수립된 통속 기원 1792년 9월 22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통속 기원은 폐지한다.
- 1년은 각각 30일씩 똑같은 12달로 나누어지며 그 다음에 평년의 365일을 채우기 위해 5일의 가산일 Epagomènes이 뒤따른다. 이 5일은 어떠한 달에도 속하지 않는다.
- 각 달은 각각 10일씩의 3순(旬)으로 나누어진다. 하루는 10시간으로 나누어지고 1시간은 1/10, 1/100으로 나누어진다.

롬의 보고서와 법안을 심의한 10월 5일의 국민공회에서 이 3대 원칙은 그대로 확정된다.²⁴⁾ 롬은 열정적인 수사학에 의해 공화국 기원을 1월 1일, 춘분, 9월 21일²⁵⁾에 두자는 주장들을 간단하게 제압했다.

22) 이집트인들의 태양력은 1년을 균일한 12달로 나누고 5일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것을 로마가 계승하여 서양 역법의 토대가 된다. 김현일, 『시간과 서양 문명』, 『역사비평』 50호, 2000, pp. 150-164.

23) 이 보고서에는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첨부되었다.

24) James Guillaume, t. 2 (1894), pp. 582-584.

25) 르키노 Lequinio는 교육안 관련 토론에서 새해 첫날의 축제는 인정하지만, 미신과 무지에 기초한 통속 기원을 폐지하고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국 기원을 춘분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James Guillaume, t. 1 (1891), p. 548.

군주제의 마지막 날이고 통속 기원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할 1792년 9월 21일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국민공회에서 모여 개회하고 왕정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1792년 9월 22일 이 법이 파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9월 22일은 공화국의 첫 번째 날이라고 포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태양은 아침 9시 18분 30초에 천칭궁에 들어감으로써 추분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이 시민적이고 정신적인 평등이 새로운 정부의 신성한 토대라고 선포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태양이 하나의 반구에서 다른 반구로 넘어간 바로 그날 왕들의 압제를 물리친 인민은 군주제 정부에서 공화제 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²⁶⁾

룸에 따르면, 추분과 공화국 첫날의 일치는 하늘이 부여한 행운이라는 것이다. 이집트의 태양력 그리고 달과 날의 십진법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 라랑드를 비롯한 과학자들에 대한 국민공회 의원들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기가 달랑베르가 이미 『백과전서』에서 십진법을 주장했으며²⁷⁾, 제헌의회가 1790년 5월 8일 과학자들에게 의뢰한 도량형 개혁 작업이 십진법에 기초하여 진행 중이었다²⁸⁾. 10월 5일자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²⁹⁾.

- 통속 기원을 폐지하고 1792년 9월 22일 시작되는 공화국 기원을 채택한다.
- 공화국 원년은 1792년 9월 22일~1793년 9월 21일이다.
- 공화국 2년이 1793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명령한 법은 폐기한다.
- 1년은 12개월 * 30일에 5일의 보충일 *jours complémentaires*을

26) James Guillaume, t. 2 (1894), p. 442.

27) 달랑베르는 ‘십진법 *Décimal*’ 항목에서 리브르 livre (20수), 수 sou (12드니에), 날(24시간), 시간(60분) 등을 십진법에 의해 나누면 훨씬 더 쉽고 편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Michel Froeschlé (1996), p. 310.

28) 국민공회는 1793년 8월 1일 미터를 길이 단위로 채택했고, 공화력 3년 종월(種月) 18일(1795년 4월 7일) 십진법에 기초한 새로운 도량형을 확정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한다.

29) James Guillaume, t. 2 (1894), pp. 582-584.

두고 달은 10일씩의 3순으로, 하루는 10시간으로 나눈다.

2. 공화력의 명칭

공화력의 명칭은 원칙과는 달리 쉽게 결정되지 못했다. 롬은 보고서의 5장 ‘프랑스력의 명칭 *nomenclature du calendrier français*’에서 *janvier*를 비롯한 기존의 월명은 굴종과 무지의 기념비이고 주일(週日)의 이름은 점성술적이고 그 순서는 난잡하다고 질타한 다음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 월순(月順)

⑦ 3월 21일~4월 19일: 재생(월)

프랑스인들은 14세기 동안의 압제에 지치고, 오래 전부터 최악의 온상인 궁정이 그 본을 보이며 유발했던 부패의 끔찍한 만연에 놀라 재생의 필요를 느꼈다.

⑧ 4월 20일~5월 19일: 집회(월)

궁정은 재원이 고갈되자 프랑스인들을 소집했지만 이들의 집회가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대표자들을 뽑았는데 이 대표자들의 용기가 폭군을 신경질 나게 했다. 대표자들은 위협을 받았다.

⑨ 5월 20일~6월 18일: 정구장(월)

그러나 정구장에 모여 인민의 보호를 받은 그들은 압제에서 인민을 해방하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서했다. 이 선서가 온 프랑스에 울려 퍼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⑩ 6월 19일~7월 18일: 바스티유(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했다.

⑪ 7월 19일~8월 17일: 인민(월)

바스티유는 분노한 주권인민에게 함락되었다. 나쁜 뜻을 품은 자들이 늘어나서 반역이 일어나고 궁정은 음모를 꾸미며 여러 국회의원들은 비열한 목적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켰다.

⑫ 8월 18일~9월 16일: 산악파(월)

그러나 언제나 충성스러운 산악파가 프랑스의 올림포스 산이 되었고 국민공회는 국민에게 둘러싸여 국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권리와 헌법

① 9월 22일~10월 21일: 공화국(월)

그리고 공화국을 선포했다.

② 10월 22일~11월 20일: 단일(월)

③ 11월 21일~12월 20일: 우애(월)

④ 12월 21일~1월 19일: 자유(월)

단일과 우애와 자유는 프랑스인들의 힘이며

⑤ 1월 20일~2월 18일: 정의(월)

폭군의 목을 자른 국민적 정의의 지고한 행위에 의해

⑥ 2월 19일~3월 20일: 평등(월)

성스러운 평등에 영원히 결합되었다.

재생월은 모든 자연이 다시 태어나는 봄의 첫 달이다.

집회월은 헌법에 의해 초중의회에 바쳐진 달이다.

정구장월은 프랑스를 구한 선서를 기념한다.

바스티유월에는 바스티유가 민중에게 함락된 날이 들어있다.

인민월에는 8월 10일이라는 불멸의 날이 들어있다.

산악파월은 인민의 충실한 대표자들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엄숙한 승인 직후에 온다.

공화국월은 공화국이 선포된 날에 시작된다.

단일월과 우애월은 사람들이 밭에서 땅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들인 다음 집으로 돌아가 자연과 훌륭한 사회 조직의 혜택을 다 같이 또 우애 있게 누리는 달이다.

자유월과 평등월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최후의 왕을 심판하고 처형한 인민의 정의월에 의해서 연결된다.

9월 17, 18, 19, 20, 21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다섯 날은 국민축제에 바쳐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날들의 이름이 우리의 새로운 제도의 도덕적인 목표에 대한 간결한 해설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 가산일의 이름

입양(일): 공화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엄숙한 입양(식) 후에 대가족의 아이들처럼 보호되고 보살핌을 받으며 키워진다.

생업(일): 그들은 동일한 교육에 의해 모든 종류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길러진다.

보상(일), 부모(일), 경로(일): 그들은 기술자나 군인으로서 심사를 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고,

부모의 날: 부모들은 격려와 존경을 받으며

경로의 날: 노인들은 공경된다.

혁명의 날: 4년마다 혁명은 올림픽 경기로 기념된다.

- 순일(旬日)

모든 시민은 조국을 번영시키는 기술의 친구로서 생업과 자유의 특성에 매일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성찰에서 나온 이름들을 순일에 붙이자고 제안한다.

- ① 평등의 상징인 ‘수준기의 날’
- ② 자유의 상징인 ‘붉은 모자의 날’
- ③ 국민색의 상징인 ‘휘장의 날’
- ④ 자유민의 무기인 ‘창의 날’
- ⑤ 우리 땅을 위한 부의 도구인 ‘쟁기의 날’
- ⑥ 우리 산업적 부의 도구인 ‘컴퍼스의 날’
- ⑦ 단결에서 태어나는 힘의 상징인 ‘다발의 날’
- ⑧ 우리 승리의 도구인 ‘대포의 날’
- ⑨ 후손의 표상이며 사회적 덕행의 상징인 ‘떡갈나무의 날’
- ⑩ ‘휴식의 날’³⁰⁾

롬은 자신이 제안한 명칭이 “천상의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며 혁명의 주요 사건, 목적,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⑥ 달의 이름은 새로운 체제가 기초하는 토대의 강력한 이

30) James Guillaume, t. 2 (1894), pp. 445-448.

미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화국, 단일, 우애, 자유, 정의, 평등이라고 정했다. ⑦~⑫ 달은 혁명의 초기 사건들(재생, 집회, 정구장, 바스티유, 인민, 산악파)에서 따온 것이다. 가산일에는 사회적인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1793년 9월 19일의 공교위 127차 회의에서부터 롬의 작명에 대해 반대론이 압도했다.

달 이름에 대해 토론했다. 황도(黃道) 12궁³¹⁾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나 거부되었다. 자유에 봉사하고 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달에 붙이자는 제안 역시, 우상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달의 이름을 자연현상과 농촌의 작업에서 따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고 토의를 미루었다.³²⁾

반대론은 두 가지 지적에 근거한다. 첫째, 롬의 작명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혁명적이다. 둘째, 다른 나라와 미래 세대가 공화력을 채택하게 만들려면 프랑스 혁명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롬은 9월 20일의 국민공회에서 보고서와 법안을 낭독만 했고 관련 토의는 10월 5일 이루어졌다.³³⁾ 10월 5일 국민공회는 공화력의 원칙을 수용한 다음, 명칭에 대해서는 3개 안을 검토했다.³⁴⁾

31) 춘분점을 기점으로 황도를 30도씩 12분하여 성좌 이름을 붙인 것.

32) James Guillaume, t. 2 (1894), p. 439.

33) James Guillaume, t. 2 (1894), pp. 584-587.

34) James Guillaume, t. 2 (1894), pp. 580-581.

	1안	2안	3안
순	Premier	Le Niveau	Les Vertus
	Second	Le Bonnet	Les Epoux
	Troisième	La Cocarde	Les Mères
	Quatrième	La Pique	Les Enfants
	Cinquième	La Charrue	La Charrue
	Sixième	Le Compas	Le Commerce
	Septième	Le Faisceau	L'Union
	Huitième	Le Canon	La Force
	Neuvième	Le Chêne	Le Chêne
	Dixième	Le Repos	Le Repos

월	Premier	La République	La Fondation
	Second	L'Unité	L'Unité
	Troisième	La Fraternité	La Fraternité
	Quatrième	La Liberté	La Liberté
	Cinquième	La Justice	La Justice
	Sixième	L'Egalité	L'Egalité
	Septième	La Régénération	La Régénération
	Huitième	La Réunion	La Réunion
	Neuvième	Le Jeu de Paume	La Fermeté
	Dixième	La Bastille	La Vigueur
	Onzième	Le Peuple	Le Peuple
	Douzième	La Montagne	La Fidélité

1안은 순전히 숫자에만 의지한 것이며 2안과 3안에는 토의 도중에 각각 ‘혁명적’, ‘도덕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여졌는데 다음과 같은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에서는 프랑스의 기원을 바꾼 것으

로 충분하며 괜히 인민을 미신으로 몰고 갈 유별난 명칭 대신에 가장 간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 만족하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없으면 귀족들과 광신주의자들이 악용할 염려가 있으니까 혁명 정신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혁명적이거나 도덕적인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1안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공회의 10월 5일자 법 9조는 다음과 같다.

월, 순일, 보충일에 일반적인 명칭을 붙여서 제1월, 제2월, 제3월... 제1일, 제2일, 제3일... 식으로 한다.³⁵⁾

바로 그 다음 날, 즉 10월 6일부터 국민공회 의사록은 ‘공화국 2년 제1월 제15일’이라고 날짜를 표기하기 시작했다³⁶⁾. 그러나 ‘2년 제1월 제15일’처럼 단조롭고 지루한 표기의 약점이 드러나자 2년 제1월 제15일(10월 6일)의 국민공회는 ‘순일 명칭 관련 연구’를 공교위에 맡긴다. 이 문제는 2년 제1월 제16일(10월 7일)의 공교위 135차 회의에서 잠깐 논의된 다음, 제1월 제21일(10월 12일)의 138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1월 제27일(10월 18일)의 국민공회에 상정된 4-7안은 다음과 같다.³⁷⁾

35) James Guillaume, t. 2 (1894), p. 583. 룬의 ‘혁명적’ 명칭을 거부한 국민공회는 ‘도덕적’ 명칭(3안)을 채택했으나, 모든 날이 ‘부부의 날’이라는 지적에 이런 명칭이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1안을 통과시킨다.

36) 공교위 134차 회의록은 ‘1793년 10월 6일’이라고 했다가 135차 회의로부터 ‘공화국 2년 제1월 제16일’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37) James Guillaume, t. 2 (1894), pp. 580-581.

	4안	5안	6안	7안
순	Primile	Prime-di	Soldi	Revol-di
	Bisile	Deux-di	Lundi	Libre-di
	Trisile	Tri-di	Mardi	Fédre-di
	Quatrile	Quatre-di	Mercredi	Egaldi
	Quintile	Cinq-di	Jeudi	Républe-di
	Sextile	Six-di	Vendredi	Revol-di
	Septile	Sept-di	Samedi	Libre-di
	Octile	Huit-di	Terredi	Fédre-di
	Novile	Neuf-di	Herscheldi	Egal-di
	Décile	Dix-di	Cieldi	Républe-di

월	De l'Automne	La Balance	L'Egalité	De l'Egalité
	Des Semailles	Le Scorpion	La Victoire	Des Semailles
	Des Nuits	Le Sagittaire	Les Belges	Du Repos
	De l'Hiver	Le Capricorne	Le Jugement	De la Glace
	Des Frimas	Le Verseau	L'Exemple	De la Justice
	Des Vents	Les Poissons	L'Espérance	De la Victoire
	Du Printemps	Le Bélier	La Régénération	Des Fleurs
	Des Fleurs	Le Taureau	Le Bonheur	De la Réunion
	Des Jours	Les Jumeaux	La Fraternité	De Relâche
	De l'Été	Le Cancer	La Révolution	De la Liberté
	Des Moissons	Le Lion	La Liberté	De la Récolte
	Des Fruits	La Vierge	La Souveraineté	Des Fruits

그러나 어떠한 안도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다 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롬이 순일을 지칭하기 위한 명칭 목록을 국민공회에 제출했다. 그는 날 의 순서를 가리키는 *quintilis*, *sextilis* 등의 이름을 라틴인들이 사용했음을 상기키시면서 이것들을 프랑스어화해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날은 *primilie*, 둘째 날은 *bisibile*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었다. 청중의 귀가 이러한 소리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또 *lundi* 등의 어미와의 유추에 의해서 *primedi*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제1일, 제2일 등의 간단한 표현으로 만족하자는 의견이 었다. 뒤엠 Duhem이 이런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모든 민족들이 기본 지 식을 장려하며 부자연스럽지 않은 용어와 일종의 문법적 기계장치에 의해 서 개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프랑스 인민을 무지에 의해서 전제주의로 되돌아가게 만들려 한다고 불평했다. 다른 의원들은 도덕적인 개념에 연결되거나 자연의 가장 즐거운 것에서 끌어낸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름을 날과 달에 붙이기를 원했다. 이런 목적 을 이루기 위해 롬, 파브르 데글랑틴 Fabre d'Eglantine, 다비드, 쉐니에 Chénier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어 이 제안이 채택되었다.³⁸⁾

‘달과 날의 명칭 *nomenclature des mois et des jours*’을 위해 구 성된 전문위원회³⁹⁾를 대표하는 파브르가 보고서 및 법안을 제2월 제3일(10월 24일)의 국민공회에서 발표하고, 이날 국민공회는 제1월 제14일자 법 9조를 폐기하고 파브르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공화력 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종료된다.⁴⁰⁾ 파브르 안은 롬의 이념적 또 는 혁명적 명칭과 일반적 명칭 사이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순일 의 이름은 5안과 거의 똑같고 라틴어 기수와 서수를 참고한 것이다.

38) James Guillaume, t. 2 (1894), pp. 625-626.

39) 이 전문위원회는 국민공회의 명령에 의해 나중에 인쇄된 보고서에서는 ‘역법 제 정을 책임진 전문위원회 *commission chargée de la confection du calendrier*’라 고 불린다. James Guillaume, t. 2 (1894), p. 697.

40) James Guillaume, t. 2 (1894), pp. 693-696.

5 안	Prime-di	Deux-di	Tri-di	Quatre-di	Cinq-di
파 브 르 안	Primidi	Duodi	Tridi	Quatridi	Quintidi
라틴어 기수	unus	duo	tres	quattuor	quinque
라틴어 서수	primus	secundus	tertius	quartus	quintus

5 안	Six-di	Sept-di	Huit-di	Neuf-di	Dix-di
파 브 르 안	Sextidi	Septidi	Octiai	Nonidi	Décadi
라틴어 기수	sex	septem	octo	novem	decem
라틴어 서수	sextus	septimus	octavus	nonus	decimus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는 순일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다(예를 들면, 우월 15일). 따라서 공화력 명칭의 핵심은 달 이름에 있다. 파브르의 월명은 그 달에 고유한 온도나 생산물을 표현함으로써 계절을 환기시킨다. 파브르 보고서는, 그레고리력의 종교적인 이미지로 지금까지 민중을 속이고 지배해 온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고발한 다음, 민중을 프랑스의 정치적 기본인 농업으로 귀의시키기 위해 농업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명칭의 목록을 제시한다.

새 달력이 더 잘 느껴지고 더 쉽게 기억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임명한 전문위는, 이름에 의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미지의 본성과 연속에 의해 교육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농업과 농촌 경제에서 골라낸 알기 쉽거나 가시적인 기호들로 한 해의 시기와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역법에 의해 농업 제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여기로 국민을 귀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많을수록 더 쉽게 기억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달에 고유한 기온과 그 때 땅에서 나오는 작물의 종류를 표현하며, 1년을 구성하는 네 계절 속에서 그 달이 위치하는 계절의 종류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독특한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계절의 종류는 이어지는 세 달에 똑같이 붙어서 네 가지 소리를 내는

네 가지 어미에 의해 표시되고, 이 어미들이 각각 해당 계절을 귀에 알려 줍니다.

또 우리는 단어의 구성과 운율법에서 그리고 어미의 구조에서 언어의 모방적인 조화를 활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구성하는 달들의 이름은 낮은 소리와 중간 박자를, 겨울의 달들은 무거운 소리와 긴 박자를, 봄의 달들은 즐거운 소리와 짧은 박자를, 여름의 달들은 낭랑한 소리와 큰 박자를 갖습니다.

가을을 구성하는, 1년의 처음 세 달 가운데 첫 번째 것은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되는 포도 수확으로부터 어원을 따서 포도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달은 10월에서 11월까지 자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스미어 나오는 낮은 안개에 근거하여 무월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달은 11월에서 12월까지 느껴지는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습한 추위에 근거하여 상월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의 첫 번째 달은 12월에서 1월까지 땅을 하얗게 만드는 눈으로부터 어원을 따서 설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달은 일반적으로 1월에서 2월까지 더 많이 내리는 비에 근거하여 우월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달은 2월에서 3월까지 땅을 말리는 바람과 떨어지는 우박에 근거하여 풍월이라고 부릅니다.

봄의 첫 번째 달은 3월에서 4월까지 수액의 발효와 증가로부터 어원을 따서 종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달은 4월에서 5월까지 꽃들의 만발에 근거하여 화월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달은 5월에서 6월까지 풀밭의 수확과 즐거운 풍요에 근거하여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의 첫 번째 달은 6월에서 7월까지 들을 뒤덮는 물결치는 이삭과 황금빛 수확물에 근거하여 수확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달은 7월에서 8월까지 공기를 덥히는 태양과 땅의 열에 근거하여 열월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달은 8월에서 9월까지 태양이 금빛으로 익히는 과일들에 근거하여 실월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이름들의 결과로 월명을 발음하기만 해도 누구나 세 가지 점, 달이 속하는 계절의 종류와 기온과 식물의 상태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월의 첫날부터 단어의 어미에 의해 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단어가 제시하는 의미와 구성에 의해 자연의 기본요소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단어의 의미

에 의해 짝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⁴¹⁾

가을	겨울	봄	여름
포도월 Vendémiaire	설월(雪月) Nivôse	종월(種月) Germinal	수확월 Messidor
무월(霧月) Brumaire	우월(雨月) Pluviôse	화월(花月) Floréal	열월(熱月) Thermidor ⁴²⁾
상월(霜月) Frimaire	풍월(風月) Ventôse	초월(草月) Prairial	실월(實月) Fructidor

월명의 어원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제 4 안	가을	파종	밤	겨울	겨울안개	바람
파브르안	포도월	무 월	상 월	설 월	우 월	풍 월
어 원	vendange lat. vindemia	brume	frimas	lat. nivosus	lat. pluviosus	lat. ventusus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제 4 안	봄	꽃	낮	여름	수확	과일
파브르안	종 월	화 월	초 월	수확월	열 월	실 월
어 원	lat. germen	lat. florens	prairie	lat. messis gr. dôron	gr. thermos gr. dôron	lat. fructus gr. dôron

41) James Guillaume, t. 2 (1894), pp. 699-701. <http://prairial.free.fr/calendrier/calendrier.php?lien=discoursfabre>.

42) 제2월 제3일(10월 24일)의 국민공회에서 낭독된 파브르 보고서에서는 여름의 둘째 달이 fervidor (<lat. *fervidus*, brûlant)이었다. 그런데 보고서 낭독과 인쇄 사이에 thermidor로 바뀌었다. 제임스 기욤에 따르면, 파브르는 처음부터 fervidor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thermidor는 어원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주저했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모든 월명의 어원은 라틴어이다. James Guillaume, t. 2 (1894), p. 700. 송기형(1989), pp. 181-183.

이런 과정을 통해 공화력의 원칙과 명칭을 확정한 국민공회는 공화국 2년 무월 19일(11월 9일) 새로운 역법에 관한 모든 법들을 하나로 묶도록 명령하고, 롬이 상월 4일(11월 24일) 통합안을 제출하여 이것이 최종 법으로 포고되고 여기에 지침 *instruction*과 공화국 2년의 책력이 덧붙여져서 공화력이 완성되는 것이다.⁴³⁾ 완성된 공화력은 국민공회 명령에 의해 인쇄되어 『프랑스 공화국 달력 *Calendrier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이라는 책자로 상월 말(12월 20일 경)에 최초로 출판되었고 이후에는 『공화력 *Calendrier républicain*』이라는 책자로 보급되었다.⁴⁴⁾

III. 맺는말

공화력 관련 연대기를 정리해보자.

- 1792년 1월 2일: 입법의회가 ‘자유 기원’이 1789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결정. 공문서에 ‘자유 4년’이라고 표기
- 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가 만장일치로 왕정 폐지를 선포
- 1792년 9월 22일: 국민공회가 공문서에 ‘자유 4년’ 대신 ‘프랑스 공화국 원년’이라고 표기하라고 명령
- 1792년 12월 20일: 국민공회가 공교위에 공화국 기원과 통속 기원의 일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라고 명령
- 1792년 12월 21일: 공교위가 역법 변경을 연구하는 전문위원들 임명
- 1793년 1월 2일: 국민공회가 ‘공화국 2년’이 1793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결정
- 1793년 9월 20일: 롬이 「공화국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공회에서 발표

43) James Guillaume, t. 2 (1894), pp. 873-875.

44) James Guillaume, t. 2 (1894), pp. 873-875.

1793년 10월 5일: 국민공회가 롬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화력의 원칙을 확정. 공화국 기원이 1792년 9월 22일 시작된다고 결정.

1793년 10월 18일: 국민공회가 ‘달과 날의 명칭’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1793년 10월 24일: 국민공회가 파브르의 보고서 및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공화력의 명칭을 확정

1793년 11월 9일: 국민공회가 공화력 관련법들을 단일화하도록 명령

1793년 11월 24일: 국민공회가 롬의 통합안에 의거하여 공화력을 완성

18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⁴⁵⁾ 공화력이 구체제 일소와 재생이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혁명적 심성의 산물이며 표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화국 기원이 1792년 9월 22일 시작된다고 결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화국 기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1792년 1월 1일과 9월 21일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1월 1일은 통속 기원의 새해 첫날이고 9월 21일은 왕정을 폐지한 날이라서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9월 22일은 국민공회가 공문서에 ‘프랑스 공화국 원년’을 표기하라고 명령한 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공회 의사록도 아주 간략하기 짝이 없다.⁴⁶⁾ 1792년 9월 22일 오전 본회의가 10시에 시작되어 서기가 9월 21일자 의사록을 낭독하자 비요바렌이 “9월 21일부터 공문서에 자유 4년 대신 ‘프랑스 공화국 원년’이라고 표기하자”라고 제안하고 ‘자유 4년’을 병기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 반대론이 압도적이라 곧바로 비요바렌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9월 21일자 의사록을 수정하여 ‘자유 4년’ 대신

45) 나폴레옹은 13년 12월 22일(1805년 9월 9일)자 법에 의해 공화력을 폐지하고 1806년 1월 1일부터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공화력은 1848년 제2공화국 초창기와 파리 코뮌 기간에 잠깐 다시 통용되었다.

46)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tome 52, p. 80.*

‘프랑스 공화국 원년’이라고 표기했다. 이렇게 1792년 9월 22일의 국민공회가 “9월 21일부터 공문서에 ‘공화국 원년’이라고 표기”하기로 결정했으므로 공화국 원년은 1792년 9월 21일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793년 1월 2일의 국민공회는 ‘공화국 2년’이 1793년 1월 1일 시작된다고 결정했다. 자동적으로 공화국 원년은 1792년 1월 1일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공화국 기원’ 관련 논란에서 1792년 9월 22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는 너무도 당연했다. 거듭 말하지만, 1792년 9월 22일은 국민공회가 1792년 9월 21일부터 공문서에 ‘프랑스 공화국 원년’을 표기하라고 결정한 날에 불과하다. 실제로 1792년 12월 말과 1793년 1월 초의 국민공회 논의에서 9월 22일을 제시한 의견은 없었다. 1792년 9월 22일을 공화국의 새해 첫날로 삼자는 제안은 1793년 9월에 공개된 롬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공회는 9월 22일을 즉각 수용했다. 왜 그랬을까? 8월 10일 봉기에서 9월 21일 왕정 폐지에 이르는 급진화를 통해 구체제 일소를 완료한 혁명은 프랑스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또는 기원이 절실했다.

혁명은 프랑스인들의 영혼을 단련시켜 매일 공화적 덕목에 길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평등처럼 새롭고 위풍당당하며 순박하게 행진하면서, 다시 태어난 프랑스의 연대기를 새로운 끝으로 새겨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공문서에 ‘프랑스 공화국 원년’을 표기하라고 명령한 1792년 9월 22일자 법의 취지입니다.⁴⁷⁾

새로운 기원을 1792년 9월 22일로 정하여 바로 이날 공화국이 수립된 것으로 공인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47) 롬의 『공화국 기원에 대한 보고서』. James Guillaume, t. 2 (1894), p. 441.

9월 22일 공화국 수립에 관련된 어떠한 행사도 조치도 없었다. 공화국을 수립하는 행사가 거행된 것도 아니고 관련 기구나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공화국 정부 역시 구성된 적이 없다.⁴⁸⁾ 또 롬의 수사학이 뛰어났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을이 시작되는 추분을 공화국의 새해 첫날로 정한 것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공화정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입헌군주제의 실패가 자초한 것이고⁴⁹⁾” 제1공화국은 예측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고 격렬하게 출현한 새로움⁵⁰⁾’이었다. 예측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수립된 적도 없는 이 급작스러운 공화국에 최대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가 바로 9월 22일이었다. 그 전날 왕정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구체제 일소(왕정 폐지)와 재생(공화국 수립)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왕정을 폐지한 9월 21일, 즉 구체제의 마지막 날을 새로운 체제 또는 재생의 첫날로 삼을 수는 없었다. 추분과의 일치는 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공화국 기원이 1792년 9월 22일 시작된다고 결정한 1793년 10월 5일자 법 또는 공화력에

48) 제1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은 1793년 6월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도 못하고 사문 화되고 말았다. 공화국 정부 역시 구성된 적이 없었으며 1793년 10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평화 시까지 혁명적이다”라고 선포하고 12월 4일(상월 14일) ‘임시 혁명정부법’을 제정하여 공안위 독재를 합법화했다.

49) 최갑수, 『공화국, 공화주의, 프랑스』,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가넷, 2011, pp. 31-32, “1791년 6월 20일 바렌으로의 국왕 탈주 사건이 있기까지 노골적인 공화주의자는 드물었고 있었더라도 고립적이었다.” 루이 16세의 탈주가 실패한 직후 코르들리에 클럽이 공화국의 선포를 제헌의회에 요구한 것을 기점으로 같은 내용의 호소문과 청원서들이 등장했다. 당통과 마라 등의 급진파들이 주도한 7월 17일의 상드마르스 집회가 대표적이다. 7월에는 공화국 관련 토론과 글이 성행했는데, 콩도르세의 『공화국에 대하여 또는 자유의 보존에 왕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연설이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입헌군주제를 선포한 1791년 9월의 헌법 제정에 의해 활력을 잃고 말았다. 양희영, 『프랑스 혁명과 공화국의 탄생』, 이용재·박단 외(2011), pp. 58-60. 송기형(1989), pp. 102-103.

50) révolution에 붙여진 새로운 의미. 주 1 참조.

의해, 1792년 9월 22일의 ‘공화국 수립’을 공인한 것이다. 1792년 9월 22일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었다. 아니 1792년 9월 22일 자체가 다시 태어난 셈이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 *révolution*이란 단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1792년 9월 22일을 공화력의 새해 첫 날로 정한 동시에 역법을 개혁하고 달과 날에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구체제를 일소하고 새롭게 태어난 프랑스 공화국의 생일을 영원히 기리려고 했던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필자는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 크게 의존했다. 하지만 1792년 9월 22일의 국민공회가 공문서에 ‘프랑스 공화국 원년’을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선택한 날짜가 9월 22일이 아니라 9월 21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선행 연구는 없는 것 같다. 프랑스 제1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1792년 9월 21일부터 공문서에 ‘프랑스 공화국 원년’ 표기를 의무화한 1792년 9월 22일자 법이 아니라, 공화국 기원이 1792년 9월 22일 시작된다고 확정된 1793년 10월 5일자 법 또는 공화력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화력이 혁명적 명칭을 포기하고 자연에서 따온 명칭을 채택했기 때문에 혁명의 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⁵¹⁾ 하지만 혁명적이거나 도덕적 명칭의 배제는, 혁명이 급진화를 넘어 공포정치라는 과격화로 치닫는 소용돌이⁵²⁾ 속에서도 혁명가들이 합리적인 판단과 유연한 사고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공화력의 목표는 립이 강조했듯이 “나날의 삶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월명과 일명의 변경을 통해

51) Marie-Hélène Froeschlé et Chopard · Michel Froeschlé-Chopard (1990), p. 78.

52) 1793년 3월 10일 혁명재판소가 설치되고 9월 17일 ‘혐의자법(*loi des suspects*)’이 제정되는 등 공포정치가 시행되는 와중에 공화력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화력 제정이 비기독교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포정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모나 오주프의 의견에 필자는 동의한다. Mona Ozouf (1988), p. 484.

모든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혁명을 상기시키므로써 그들의 시민 정신을 북돋는 것”이다. 국민공회에서 검토된 7개 안을 살펴보면, 공화력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롬의 안이다. 하지만 이 혁명적 명칭이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여 질 위험까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기에 공교위에서부터 반대론이 압도했던 것이다.

단일과 우애와 자유는 프랑스인들의 힘이며 폭군의 목을 자른 국민적 정의의 지고한 행위에 의해 성스러운 평등에 영원히 결합되었다.⁵³⁾

이런 취지에서 그레고리력의 10월~2월에 단일월, 우애월, 정의월, 평등월 같은 이름을 붙이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고, 롬 역시 즉각 반대론을 수용했다. 서수에 기초한 1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1793년 10월 5일의 국민공회는 1안을 채택했지만, ‘2년 제1월 제15일’처럼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명’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혁명적이거나 도덕적인 명칭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새해 첫날을 9월 22일로 정하고 달을 3순으로 나누는 등의 공화력 원칙만으로도 혁명을 일상적으로 상기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화력을 널리 그리고 오래 사용되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정한 작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스러운 이름
- 누구나 익숙한 자연과 농업에 관련된 이름
- 풍부한 이미지에 의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름
- 소리와 운율에 의해 계절을 알려주는 이름

53) 롬의 「공화국 기원에 대한 보고서」. James Guillaume, t. 2 (1894), p. 446.

요컨대, 듣기만 해도 “계절의 종류와 기온과 식물들의 상태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느끼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 이런 명칭이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인 혁명적 명칭보다 혁명을 상기하는 데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것이 파브르가 주도한 작명 전문위원회의 논리였다. 이런 관점에서 파브르 전문위원회의 작명은 성공작이었다. 똑같이 자연과 계절에서 이름을 따온 4안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같은 계절의 3달 이름은 그 각운이 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미슐레의 예찬을 들어보자.

기후나 수확물에서 따온 월명들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생생하며 선율적인 매력으로 가득차서 즉각 만인의 가슴 속에 새겨져 결코 잊히지 않았다. 이 월명들은 오늘날 프랑스인들의 유산이 되었고 생동적인 작품으로 남아 혁명이 영원히 살아남고 계속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름들을 듣고 그 어떤 심장이 마구 뛰지 않겠는가?⁵⁴⁾

물론 공화력은 ‘기독교력’에 대한 농민의 강력한 집착 등의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공화력이 12년 2개월 27일이나 유지된 것이 신기하다고 볼 정도이다.⁵⁵⁾ 열월파와 총재정부는 물론이고 왜 나폴레옹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공화력 폐지를 주저했을까? 공화국을 수립한 것이 바로 공화력이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공화력 폐지는 공화정 폐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화국을 보호해 달라는 원로원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 공화국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도 그렇게 망설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54) Jules Michelet,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tome 6, Chamerot, 1853, p. 371.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55886c/f9.item.r=Histoire%20de%20la%20revolution%20francaise%20par%20Michelet%20tome%206>

55) Mona Ozouf (1988), pp. 488-490.

□ 참고문헌

-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première série, tomes 37, 52.
- Baczko, Bronislaw. “Le calendrier républicain”, Pierre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 La République*, Gallimard, 1984, pp. 37-83.
- Froeschlé, Michel. “A propos du calendrier républicain: Romme et l’astronomi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304, 1996, pp. 303-325.
- Froeschlé-Chopard, Marie-Hélène et Froeschlé-Chopard, Michel. “Une double image de la Révolution: le calendrier et le mètr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279, 1990, pp. 74-88.
- Furet, François et Ozouf, Mona.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1988.
- Guillaume, James. *Procès-verbaux du comité d’instruction publique de la Convention nationale*, t. 1-6, Imprimerie nationale, 1891-1907.
- Ozouf, Mona. “Calendrier”, François Furet et Mona Ozouf,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1988. pp. 482-491.
- Rey, Alain.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s Le Robert, 1993.
- Tieder, Irène. “Le calendrier républicain et ses incidences littéraires”,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292,

1993, pp. 259-267.

- 김현일, 「시간과 서양문명」, 『역사비평』 50호, 2000, pp. 150-164.
- 송기형, 「불란서 대혁명기의 언어정책 - 제헌의회에서 열월 반동 직전까지」,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 _____, 「혁명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학술지』 39집, 건국대학교, 1995, pp. 53-70.
- _____, 「프랑스 혁명기 공교위의 교육안 연구」, 『프랑스사연구』 29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3, pp. 57-90.
- 양희영, 「프랑스 혁명과 공화국의 탄생」,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53-78.
- 최갑수, 「공화국, 공화주의, 프랑스」, 이용재·박단 외,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아카넷, 2011, pp. 19-52.
- 피에르 세르나, 「혁명과 민주주의 - 프랑스 혁명과 민주공화국의 창출」, 『프랑스사연구』 33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5, pp. 15-34.

« Résumé »

Une étude sur l'institution du calendrier républicain

Kihyung Song
(Université de Konkuk)

La Révolution française s'est caractérisée par la volonté de faire régénérer le peuple français en faisant table rase de l'ancien régime. Un des exemples où est constatée cette mentalité révolutionnaire est le calendrier républicain qui a été institué en octobre 1793.

Pour révolutionner le temps, les conventionnels ont remplacé le calendrier grégorien par celui des républicains que Romme a pris l'initiative de préparer. Le calendrier républicain a pour but principal de commémorer la date fondatrice de la République, le 22 septembre 1792. Le début de l'année est fixé au jour de la proclamation du nouveau régime. On découpe l'année en douze mois de 30 jours et le mois en 3 décades.

Si cette division du temps est adoptée sans difficulté, les conventionnels discutent longuement sur sa nomenclature avant d'adopter le rapport de Fabre d'Eglantine. Dans la nomenclature de Fabre, le nom du mois exprime la température ou le genre de productions qui lui sont propres, ainsi que la saison dans laquelle il se trouve.

Quelques chercheurs reprochent au calendrier républicain l'abandon de la nomenclature révolutionnaire. Mais la nomenclature de Fabre a réussi à rappeler aux citoyens la révolution qui les a rendus libres, parce que cette nomenclature est beaucoup plus naturelle et ingénieuse. Le calendrier républicain doi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image forte de la Révolution malgré son abrogation par Napoléon en 1805, croyons-nous.

주제어 : 프랑스 혁명, 공화력, 공화국, 질베르 롬, 파브르 데글랑틴
Mots-clés : Révolution française, calendrier républicain, république,
Gilbert Romme, Fabre d'Eglantine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 2015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2월 7일

